

친환경 마케팅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 환경과학 」과 「 미래 산업혁명과 기술창업론 」강의페어링
생명과학과, [redacted] 안지연 교수님 지도

목적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올라가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런 경향에 힘입어 기업의 친환경 활동은 하나의 상품 판매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친환경을 내세우는 제품이 과연 정말로 친환경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 이러한 친환경계를 내세우는 제품들을 조사하여 '환경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지 분석하고,
2. 1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미래 산업혁명과 기술창업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 혹은 가능하다면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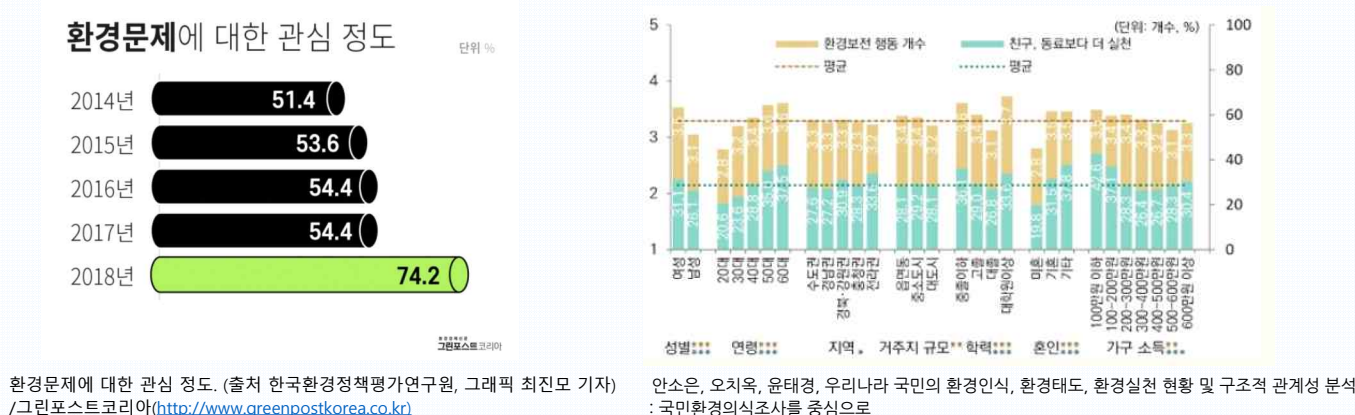
'환경과학' 에서의 강의페어링

환경과학 과목에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다양한 종류의 환경오염에 대해 공부하였다. 오염 물질은 순환해 또 다른 종류의 오염의 원인이 된다. 본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장환경주의로 야기되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환경오염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미래 산업혁명과 기술창업론'에서의 강의페어링

본 과목에서 회사 경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마케팅에 대해 배웠다. 본 강의를 바탕으로 ESG를 고려한 경영이 트렌드가 되고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환경친화적 마케팅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현실점에서 이러한 마케팅이 위장 환경 주의(그린워싱)은 아닌지,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래픽 최진모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안소는, 오지욱, 윤태경,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현황 및 구조적 관계성 분석 :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n.p.: J.EPA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2021), 그림 3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만큼 많은 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층을 상대하는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케팅에서 구체적인 타겟을 설정하기 위해 STP 전략을 사용한다.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 STP 전략은 잠재 고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전략이다. KEI의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각각, 고연령, 기혼, 여성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환경 실천 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기업은 환경 마케팅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이윤도 얻는다.

환경마케팅 전략

환경친화적 마케팅 믹스(4p)

- 제품 전략(product)
 상품의 생산, 사용, 포장, 폐기, 사회적 영향 등에는 환경적 효용이 존재하는가?
- 가격 전략(price)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개발과 제작은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 중 소비자가 환경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 유통판매전략(place)
 제품 사용 후 폐기물의 재순환이 가능한가?
- 촉진 전략(promotion)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데 정당성을 심어주고 기업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광고 또는 캠페인인가?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

- 1) 상충효과 감추기
- 2) 증거 불충분
- 3) 애매모호한 주장
- 4) 관련성 없는 주장
- 5) 거짓말
- 6) 유해상품 정당화
- 7) 부적절한 인증라벨

위에서 알아본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친환경 시장이 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친환경 시장에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인 척’ 하는 기업들이 많다. 거짓된 친환경 이미지로 이득을 보는 비윤리적인 환경 마케팅 전략을 **그린워싱**이라고 한다. 그린워싱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기에 양심적인 환경 마케팅에 비해 단기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린 워싱을 줄이기 위한 대안

- 그린 워싱의 이유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창출이고 원칙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윤을 얻고 싶어 한다. 환경을 고려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원자재값의 차이, 공정이 복잡해지는 등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소비자를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은 투자로 친환경 마케팅으로 얻는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일부 기업은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인 것처럼 속여 **그린워싱** 한다.

- **그린 워싱의 문제점**

그런 뒤에는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1)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2)친환경제품 생산업체의 매출을 감소시켜 3)친환경제품의 개발이나 판매 의지를 저해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4)친환경 시장의 환경 개선효과가 줄어들고 시장의 질서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대안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 중 **상충 효과 감추기**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하기 더 힘들다. 그 이유는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폐기될 때까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지표로 단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품의 원료를 친환경 원료로 바꾸었지만 공정에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면 이 역시 상충 효과를 감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원료의 변경으로 얻은 환경적 득이 훨씬 많다면 상충 효과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상충 효과를 감춘 그린워싱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 유해성을 종류별로 나누어 각 항목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할 수 있도록 1)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고 2)어떠한 면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환경에 유해한 측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런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린워싱에 대한 1)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2)허위, 거짓 광고가 없는지 꾸준히 단속하고 3)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인증제도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환경보호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게 사고 오래 쓰는 소비습관을 인지하고 해당 상품의 친환경성이 위조되거나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양심적인 친환경 마케팅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자료

배순영 외(2012), '녹색표시 그린인증 모니터링 및 개선', 한국소비자원.
Changing Markets Foundation, *Synthetic Anonymous: fashion brands' addiction to fossil fuels*(n.p.: Changing Markets Foundation, 2016), 16-34.
Econwsey 최윤근 전문가, *그린워싱의 진위와 의의와 전개방향*(n.p.: KONETIC, n.d.), 9-17.
박성민, 등기자료, 친환경 위장제품(그린워싱)의 현황과 과제 (n.p.: 경기연구원, n.d.), 1-17-134.
박은진, "대세는 '친환경' 말고요? 패션업계 포괄한 거짓 실체", *한경비즈니스*, 2019.11.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SD&mid=sec&cid=1103&docId=005&aid=001484035>)
카트린 하르토크, *위장친환경주의 ('그린')으로 포괄한 기업 실체* (서울시: 에코리브르, 2018), 67-75.
Valentina Ricciulla 외, "Life Cycle Assessment of runway carrier bags", *Environmental Product* 1985 (2018): 96-106